

도서관 정보



###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사서가 읽은 책

도서발굴단이 읽은 책을 소개한다. 도서관 사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책을 읽었을까?  
좋은 건 나눠야 배가 되니, 좋은 책으로 함께 힐링하도록 하자.

글 고양시도서관

####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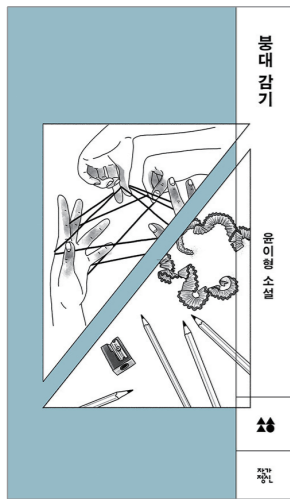
## #1 여성 간 다양한 관계를 다룬 소설\_봉대감기

저자 윤이형 출판사 작가정신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삶은 옴니버스 형식처럼 독립적이지만, 서로 교차되고 이어져 우정과 연대감을 만들어간다. 특별한 여성들의 서사가 아닌 우리 곁의 평범한 사람들의 갈등과 이해, 포용을 담은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어렵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닐까? 고통과 상처를 감싸주는 봉대처럼 우리는 길게 이어져 있고 서로를 놓을 수 없다.

#### 책속한줄

“너와 똑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전부 다 잘 못된 거야? 너는 그 사람들처럼, 나처럼 될까 두려운 거지. 왜 걱정하는 거니, 너는 자유롭고, 우리처럼 되지 않을 텐데. 너는 너의 삶을 잘 살 거고 나는 너의 삶을 응원할 거고 우리 그저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인데.”



## #2 반전이 있는 추리소설의 묘미\_살인자의 쇼핑몰

저자 강지영 출판사 자음과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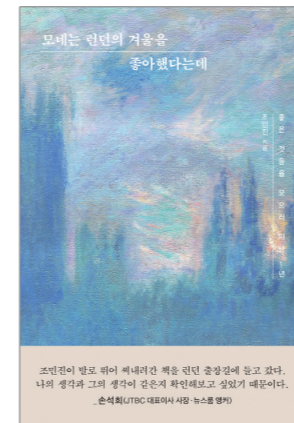
삼촌의 정체가 궁금해서 순식간에 다 읽게 되는 소설이다. 유일한 가족인 삼촌의 죽음으로 인해 정지안은 삼촌이 운영하던 쇼핑몰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지안은 어떤 선택을 하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후반부로 갈수록 고조되는 긴장감과 반전은 역시나 추리소설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 책속한줄

“잘 들어, 정지안. 거의 모든 일은 처음에 한 결정이 옳아. 비 오는 날 칼국수냐 감자탕이냐 고민될 때 먼저 생각해낸 메뉴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칼국수지.”

## #3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하루\_모네는 런던의 겨울을 좋아했다는데

저자 조민진 출판사 아트박스



신문기자와 방송기자로 14년간 일했던 조민진 기자의 1년간 런던 생활기. 혼자 런던에서 미술과 프랑수를 배우며 피트니스, 오페라, 미술관을 즐기는 그녀의 일상은 나에게만 딴 세상 이야기임엔 분명하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쌓아가는 작가의 부지런함은 생활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나에게도 큰 자극이 된다. 아무거나, 되는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모으고 싶어진다.

#### 책속한줄

“살면서 좋은 루틴을 많이 만드는 건 좋은 취향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좋은 루틴과 좋은 취향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인생도 차츰차츰 더 좋아진다고 믿는다.”

## #4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_일의 기쁨과 슬픔

저자 장류진 출판사 창비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은 흐른다. 이만큼 또 시간이 흘러 더 세상이 변한 언젠가, 벌써 그때가 기억나지 않다면 작년은 어땠더라 하고 누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가볍게 이 책을 건네도 좋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평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남아 있을 기억임에는 틀림없을 테니까.

#### 책속한줄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 나에게 아이는 마치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어른,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놓을 충분한 공간이 주어지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족해도 어떻게든 옥여넣고 살면 살아진다 는 것도 알고 있다. 물론 살 수는 있을 것이다.”